



11일 문을 연 광주시 동구 대인시장 북 카페 '미나리 상회' 일대에 작가, 상인, 관람객들이 북적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청소년을 위한 해설이 있는 피아노 연주

‘선클라비에’ 14일 문예회관

수행평가는 중고생들에게도 클래식 팬들에게도 고역이다. 일반 관객들은 공연에는 별 관심이 없는 중고생들 때문에 제대로 공연을 관람할 수 없고, 청소년들은 딱딱하고 어려운 레퍼토리에 영 집중을 못한다.
피아노 연주자들의 모임인 ‘선클라 비에’(회장 서영화)가 13번째 정기 연주회를 ‘청소년을 위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로 마련했다. 14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다양한 형태의 피아노 작품을 해설과 함께 들려주는 공연이다. 해설은 피아니스트 이상복씨가 맡았다.
연주 레퍼토리는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에도 삽입된 유명해진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 쇼팽의 ‘발라드 1번 작품 23’,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 베토벤의 오페라 ‘피델리오’ 서곡, 리스트의 ‘헝가리안 랩소디 2번’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른다.
권성해·박지현·박지영·문마리아·정현미·백승영·김수현·김미영·김기경·심지은씨가 출연한다.
‘선클라비에’는 조선대 음악교육학과와 대학원 출신으로 후진 양성과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다. 문의 010-7275-813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대인시장, 예술이 사람 모았네

상인·작가·관람객 사랑방 역할 ‘북 카페’ 개설

다닥다닥 붙은 20㎡ 안팎의 점포들에 새로 페인트가 칠해졌다. 내부는 가게 주인의 취향에 따라 독특한 창작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예술시장으로 변화하는 대인시장의 요즘 풍경이다.

시장통 중앙로 목 좋은 삼거리 앞, 새 점포엔 아름다움을 나누는 마을이라는 뜻의 ‘미나리 상회’란 간판이 걸렸다. 예전 ‘민수네 쌀가게’ 자리다.

‘미나리 상회’는 ‘대인시장 예술인 공방거리 조성사업’ 일환으로 개설한 ‘북 카페’로 예술인과 상인, 시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새로운 명소를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 카페’ 안쪽에는 ‘광주시사’, ‘사진으로 보는 광주’ 등 광주와 대인시장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책들이 꽂혀있는 책장과 탁자를 설치했다. 카페를 찾은 이들이 차 한잔 마시며 서로 담소를 나누고, 탁 토인 쇼인도우를 통해서서 행인들과 시장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바깥 테

라스엔 의자를 놓아 ‘읽’과 ‘휴식’이 깃들도록 했다.

‘북 카페’의 역할은 크게 3가지다. 대인시장을 홍보하고, 예술인 공방거리 입주 작가들의 활동을 알린다. 또 대인시장의 소중한 기록을 보존하는 보관소(archive) 역할도 하는 등 일종의 ‘마을 회관’이라 할 수 있다. 카페의 주요 사업중 하나로 매달 상인과 입주작가, 시민이 함께하는 ‘반상회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카페는 우선 시장에 대한 기록과 구술조사를 통해 대인시장의 형성과정과 현황을 문서, 사진 자료로 제작하고 이를 광주시민의 생활상을 담은 영상들과 함께 전시, 상영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프로그램도 준비중이다. 참여작가와 상인, 주민이 함께하는 ‘시장에서 놀고 싶은 아이들’, ‘장보는 어머니’, ‘바른 먹을거리 정보와 착한 소비’, ‘향토음식’ 등을 배울 수 있는 교육프

로그램인 일명 ‘대인지교’를 운영한다.

또 상인과 입주작가들의 일상과 소소한 이야기를 담은 정기 간행물도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카페 운영자 박경섭(37)씨는 “북 카페는 대인시장 상인과 시장 곳곳에 입주한 작가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신나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정겨운 공간이 될 것”이라며 “우선 시장 상인들과 어울려 진정한 이웃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옆 점포 ‘자매야채’ 주인은 “재래시장이 점점 쇠락하고 있는데 빈 점포가 새로 꾸며져 사람들이 찾고 활기를 찾는 것 같아 좋다”며 “젊은 예술가 친구들의 입주를 축하한다”고 전했다.

시장에 찾았다 카페를 열었다는 소식을 듣고 들른 윤은희(48·여)씨는 “물건을 사고 구경하면서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할 공간이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좋은 공간이 생겨 반갑다”며 “옛날 시골장터처럼 지인들의 만남의 장소로, 삶의 휴식처로 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입주 작가 선정 마무리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문진위)가 추진하고 있는 ‘대인시장 예술인공방거리 조성사업’의 작가 양성 프로그램인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의 입주 작가 선정이 마무리됐다.

문진위는 11일 상반기 단기 입주작가 15명(팀)을 선정, 발표했다. 입주자는 ▲김영순(광주 매일신문 부장) ▲김성우(서울·입체) ▲김요경숙(서울·설치) ▲김윤정(목포·영상) ▲김은와,

조은애(광주·회화) ▲남유진(광주·인디음악) ▲박일구(광주·사진) ▲신성창(광주·공예) ▲이강욱(충남·회화, 설치) ▲이경진(전주·입체) ▲이원정(서울·회화) ▲전강욱(서울·회화) ▲정광식(전주), 강병현(광주·미디어) ▲터울(광주·장안어프로그램) ▲권승찬(광주), 박은미(대전·설치, 미디어)씨 등이다.

이들은 오는 14일 입주, 오는 7월14일까지

/오광익기자 kroh@kwangju.co.kr

봄 향기에 실려오는 명곡의 선율

김선희 독창회 13일 문예회관

소프라노 김선희 독창회가 13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향이씨의 해설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에서 김 씨는 쾰터의 ‘세 개의 세익스피어 노래’, 최영섭 곡 ‘추억’, 김동진 곡 ‘봄이 오면’, 비발디의 ‘모테토’,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 중 ‘보석의 노래’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준다. 피아노 반주는 함승연씨.

그밖에 테너 이홍환씨가 특별 출연,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등을 들려주며 신정민·오승석·김도연씨 등 비발디의 ‘사계’를 선사한다.

조선대 음악교육과를 졸업한 김 씨는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과 베르첼리 비오티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했으며 현재 한세대 대학원 박사 과정에서 수학하고 있다.

호남예술제 최고상, 이탈리아 로디 콩쿠르 2등 상 등을 수상한 김 씨는 이탈리아, 독일, 광주 등에서 13차례 독창회를 가졌으며 정음성곡 제음악제, 도니제티 탄생 200주년 기념 음악회 등에 참가했다. 현재 벨칸토 아카데미 등에서 활동하며 호신대와 광주교육대에 출강중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일상의 감흥 담은 ‘내 마음...’

위무량 시인 시집 펴내

위무량(67) 시인이 소박하고 평이한 일상의 감흥을 담은 시집 ‘내 마음 나도 풀라리’를 펴냈다.

시집은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날을 반추하고 시대상을 정리해 가는 자전적 시집 형태를 띠고 있다. 서시 ‘알뜰하게 무늬’ 등 일상적인 여행, 정년퇴직의 아픔, 집안의 대소사를 소재로 한 시 130여편을 엮었다.

앞서 문진위는 내부 심사를 통해 윤남용, 조수진, 노정숙, 신호은, 이호동, 김현문, 김단아, 김주현, 이기성, 김지현씨 등 10명을 장기 체류(3월 14일~12월 31일) 작가로 선정했다.



또 시와 함께 시화와 위씨가 작사한 ‘들장미’ 등의 약 60여편의 시를 수록했다.

장흥 출신인 위씨는 전남대를 졸업하고 전 남도내 교단에서 교직생활을 했으며 2003년 ‘한국문화회’에 시 ‘환상’의 2편으로 등단한 이후 ‘서춘여정’(惜春旅情) I, II’ 등 2권의 시집을 냈다. 광주시인협회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도서출판 바로·1만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악공연예술 평가회

13일 광주라마다호텔

지난 1월5일~13일까지 광주문예회관에서 열렸던 2008광주아시아공연예술 평가 보고회가 13일 오후 2시 광주라마다호텔 4층 리셉션홀에서 열린다.

광주아시아공연예술제추진위원회(위원장 최규철)가 주최하는 이번 보고회는 지난 대회를 결산하고, 향후 광주국제공연예술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번 보고회는 전남대 류재한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최영화(공연예술제 예술 총감독), 최영(밀양여름공연예술제 기획실장)이 발제를 한다. 토론자로는 지형원, 광우호, 유광중씨가 참여한다. 문의 062-528-9208. /김미은기자 mekim@

영화안내 movies 인기영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메가박스 www.megabox.co.kr 구.현대연극사거리 ☎1544-0600 메가박스 1관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 (15세) / 최고등급 2관 (디지털)드래곤볼 에블루선 (전제) 3관 왓치맨 (18세) 4관 작전 (18세) 5관 13일의 금요일 (18세) 6관 언데드 (15세)/벤자민버논의시간은가꾸로간다 (12세) 7관 뉴욕은 언제나 사랑중 (15세) 8관 위남소리 (전제)/더 레슬러 (18세) 9관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 (15세) * 이프류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매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엔터 시네마 www.entercinema.co.kr 엔터 시네마 1관 구세주2 (15세) 2관 핸드폰 (18세) 3관 문프린세스-문에이커의비밀 (전제) 4관 작전 (18세) 5관 드래곤볼 에블루선 (전제) 6관 데스페로 (전제)/체인질링 (18세) 7관 적벽대전2-최후의결전 (15세)	콜롬버스 시네마 www.joyco.co.kr/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1관 13일의 금요일 (18세) 2관 뉴욕은 언제나 사랑중 (15세) 3관 프로스트VS닉슨 (12세)/핸드폰 (18세) 4관 드래곤볼 에블루선 (전제) 5관 작전 (18세) 6관 왓치맨 (18세) 7관 위남소리 (전제) 8관 벤자민버논의시간은가꾸로간다 (12세)/리스트 프로포즈 (12세) 9관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 (15세) 10관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 (15세)	씨너스 전대 www.cinua.co.kr/1544-0070 씨너스 전대 1관 뉴욕은 언제나 사랑중(15세) (18세) 2관 벤자민버논의시간은가꾸로간다 (12세) 3관 그는당신에게반하지않았다 (15세) 4관 (디지털)드래곤볼 에블루선 (전제) 5관 왓치맨 (18세) 6관 작전 (18세) 7관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 (15세) * 매일실사 상영합니다 * * 무료주차 3시간 *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 씨너스내 사무원(오전9시~오후11시)	하미 시네마 www.hamycinema.co.kr/1588-8120 하미 시네마 1관 구세주2 (15세)/핸드폰 (18세) 2관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 (15세) 3관 작전 (18세) 4관 위남소리 (전제) 5관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 (15세) 6관 과속스캔들 (12세) 7관 스포츠 (12세) 8관 드래곤볼 에블루선 (전제) 9관 벤자민버논의시간은가꾸로간다 (12세) 10관 뉴욕은 언제나 사랑중(15세) (18세)	제일 시네마 www.primycinema.com/www.je1cinema.co.kr * 제일 시네마 1관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 (15세) 2관 13일의 금요일 (18세) 3관 왓치맨 (18세) 4관 드래곤볼 에블루선 (전제) 5관 작전 (18세)/벤자민버논의시간은가꾸로간다 (12세) 6관 언데드 (15세)/프로스트VS닉슨 (12세)
* 500여대 넓은 주차장(3시간 무료) * 385 매일 실사 * * 하이 수경정 288-5757 * 하이 북광명 262-0825 * * 하이 골프정 251-5060 * 하이 남구정	* 2시간 30분 무료 * * 유료주차 3시간 * * 하이 북광명 262-0825 * * 하이 남구정	* 500여대 넓은 주차장(3시간 무료) * 385 매일 실사 * * 하이 수경정 288-5757 * 하이 북광명 262-0825 * * 하이 골프정 251-5060 * 하이 남구정	* 500여대 넓은 주차장(3시간 무료) * 385 매일 실사 * * 하이 수경정 288-5757 * 하이 북광명 262-0825 * * 하이 골프정 251-5060 * 하이 남구정	* 500여대 넓은 주차장(3시간 무료) * 385 매일 실사 * * 하이 수경정 288-5757 * 하이 북광명 262-0825 * * 하이 골프정 251-5060 * 하이 남구정	* 500여대 넓은 주차장(3시간 무료) * 385 매일 실사 * * 하이 수경정 288-5757 * 하이 북광명 262-0825 * * 하이 골프정 251-5060 * 하이 남구정